

# 통일·번영·미래 DMZ를 느껴라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출동

7월 24~25일·8월 14~15일  
이메일 접수... 선착순 모집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가 오는 7월 24~25일, 8월 14~15일 1박 2일간 2회에 걸쳐 평화누리길에서 진행된다.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00여명의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해 ▲평화누리길 걷기 ▲민통선 자전거 퍼레이드 ▲나라사랑 콘서트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민북관광 ▲이야기탐험대 체험프로그램 ▲타임캡슐 묻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평화누리길 트레킹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DMZ 일원의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클린티어로서의 자부심도 심어줄 예정이다. DMZ의 지리적 특

이점을 살린 캠프 그리브스에서의 숙박 또한 참여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에게는 탐험대용 티셔츠·배낭·모자·도시 등 지급품과 완주증(메달)을 제공하며, 학생 참가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8시간, 대학생 및 성인 지도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1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 참가자 및 우수 지도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최봉순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반도 DMZ의 역사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해하고, 평화·통일·번영·미래를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walkyourdmz@gto.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회차 행사(7월)는 6월 30일, 2회차 행사(8월)는 7월 1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최종복 기자 bok7000@

11.3 X 19.0 cm

## 경인일보

###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7·8월 도전

경기도는 오는 7월 24~25일, 8월 14~15일 두 차례로 나눠 '2015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400여명의 청

소년과 대학생이 참여해 ▲ 평화누리길 걷기 ▲ 민통선 자전거 퍼레이드 ▲ 나라사랑콘서트 ▲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도라산평화공원 등 민북관광 ▲ 이야기탐험대 체험 프로그램 ▲ 타임캡슐 묻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평화누리길 트레킹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체험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DMZ의 지리적 특이점을 살린 캠프 그리브스에서의 숙박도 참여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DMZ의 역사를 재미난 스토리

텔링을 통해 이해하고, 평화·통일·번영·미래를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신청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회차 행사(7월)는 6월 30일, 2회차 행사(8월)는 7월 1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윤재준·이경진기자 bioc@kyeongin.com  
20.2 X 5.7 cm